



대한민국 식량 공급 · 식품 안전을 지키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재단 2차년도 연보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136-713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녹지) 206호
 TEL, 02-929-2751 FAX, 02-927-5201 E-mail, foodsecurity@foodsecurity.or.kr
 www.foodsecurity.or.kr



[목 차]

· 이사장 인사말	02
· 임원 및 직원 명단 (Profile)	03
· 2차년도 사업내용	
- 이사회 개최	05
-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06
- 연구사업	08
- 학술회의	09
- 저술 출판사업	10
· 2차년도 재무보고(2011년 12월 31일 기준)	11
· 2012년도 사업계획	12
· 2012년도 예산	14
·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전진대회(개회사, 환영사, 축사)	15

::: 이사장 인사말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한해였으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인내하고 노력하신 많은 분들로 인해 우리사회는 밝은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밀어닥칠 세계 식량위기를 알리고 이에 대비하려는 국가적 노력을 촉구하면서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을 추진하여 지난 3월 말 그 전진대회를 aT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실천 강령과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고 기획 있을 때마다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정부는 지난 8월 식량자급률목표치를 재설정하여 2015년 곡물자급률을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큰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세계 곡물가격, 원당가격 등 거의 모든 식품 원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에 밀려 식품기업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농업과 함께 식량공급의 주체가 되는 식품산업이 이러한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 재단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품안전과 식품가격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기업, 소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식품가격 상승요인으로 꼽히는 식품폐기물 감축방안과 식품안전 관련 법규의 합리화 방안을 집중 연구하고 논의 하였습니다. 재단은 2차년도 연구과제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식품의 발생현황과 감축방안’(연구책임자 황이남 한국식품기술사협회장)을 연구 의뢰하여 우수한 연구 결과를 얻었으며 관련 토론회와 강연회들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과제로 ‘한반도 통일 후 식량안보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연구’를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의 대 국민 홍보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 운영과 트위터 접속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도서출판 식안연(食安研)’을 등록하여 출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출판으로 ‘음식오케스트라’ 재판을 내었습니다. 앞으로 식량안보와 관련된 수준 높은 저술 활동을 장려하고 출판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 재단이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이 나라의 식량 문제를 걱정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연구를 진행하며,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일조하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2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

1. 임원 및 직원 명단 (Profile) :::

[고문]



권태완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식품과학 박사
KIST 식량과학연구실장, 부원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초대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콩세계과학관 건립추진위원장



이현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네소타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미네소타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대통령실 과학기술특별보좌관



전중운 삼양식품 명예회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삼양식품 대표이사 회장
삼양축산 대표이사 회장
삼양식품 명예회장



김학용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이사장]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덴마크왕립수의농과대학 식품학 박사
미국 MIT공과대학 연구원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고문관

[이사]



김 량 삼양사 부회장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부사장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사장
삼양사 부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발효화학 석사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학사
CJ 제일제당 대표이사 겸 총괄부사장
CJ 홀쇼핑 대표이사
대상 바이오사업총괄 전무 겸 연구소장



박관희 대선제분 대표이사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석사
서울상공회의소 제20대 대의원선출
경북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대선제분 대표이사 회장

[재단사무국]



박성철 대상 대표이사 사장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삼성전자 경영혁신단 SCM그룹담당 전무
대상(주) 사장
대상(주) 대표이사 사장



박영식 사무국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 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정책팀장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연구교수



이상운 농심 대표이사부회장

서울대학교 학사
(주)농심 대표이사 사장
한국식품공업협회 비상근 부회장
(주)농심 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주)농심 대표이사 부회장



김미경 사무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
상계백병원 임상사진사

[재단연구부]



최병순 한국제분 대표이사

영남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한국제분, 동아제분 이사
동아제분 상무
한국제분(주) 대표이사



이꽃임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석사
영국 Sheffield 대학교 의과대학
분자생물/유전학 박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후 연구원
협성대학교 교양학부 시간강사

[감사]



문헌팔 북방농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UC Davis 유전학 박사
농촌진흥청 차장
아시아 태평양 육종 학회장
한림원 식량안보과학특별위원장



이장은 박사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가톨릭대학교 식품학전공 이학석사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이학박사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시간강사



황한준 고려대학교 교수

독일 Hohenheim대 식품공학 박사
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식약청 식품안전평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



이숙중 박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부설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시간강사

2. 2차년도 사업 내용 :::

「 2011. 1 ~ 2011. 12 」

2-1. 이사회 개최

(1) 1차 이사회



- 일 시 : 2011년 3월 25일 오전 7:30
- 장 소 : 서울프라자호텔, 세븐스퀘어
- 회의내용 : 2010년 업무·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2011년 사업계획심의, 2011년 운영예산 심의, CJ제일제당 김홍창 사장 선임이사 선임안 채택.

(2) 2차 이사회



- 일 시 : 2011년 3월 25일 오전 7:30
- 장 소 : 서울프라자호텔, 세븐스퀘어
- 회의내용 : 2011년 업무보고 및 가결산보고, 2012년 사업계획심의, 2012년 운영예산 심의, '식품산업의 한식세계화 전략과 사례 책자발간 계획' 논의.

2-2.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1)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취지문

세계의 식량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잦은 기상이변과 중국, 인도 등 신흥 중진국의 경제성장에 의한 동물성 식품의 폭발적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 생산에 의한 식량자원의 오용 등으로 세계 곡물시장에서 돈이 있어도 사을 식량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식량부족을 예감한 각 나라들이 식량수출을 제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량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곡물의 70% 이상, 전체식량의 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에 대한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전체 식량의 30%도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남아도는 것을 전체 식량이 아주 풍족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식량증산이나 소비절약을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식량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이제 더는 우리의 식량문제를 방치하여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취약한 식량공급 구조를 국민에게 알리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각자가 식량낭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리는 일에 동참하여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세계 식량난에 대비하는 자기 몫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FOOD ACTION KOREA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까지 식량부족

2-3. 연구사업

(1)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에 관한 연구-현황과 전망

- * 연구자 : 박태균, 황환준 * 연구기간 : 2010년 10월 20일~2011년 04월 20일
- * 연구비 : 2000만원 (2011년 10월말 현재 1,500만원 지급)
- * 연구 성과 : 제3회 식량안보세미나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주제발표

(2)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식품의 발생현황과 감축방안

- * 연구자 : 한국식품기술사협회(황이남, 채희정 외 9명)
- * 연구기간 : 2011년 02월 01일~2011년 10월 30일 (9개월)
- * 연구비 : 2,000만원 (2011년 10월말 현재 1,500만원 지급)
- * 연구 성과 : 제6회 식량안보세미나 '폐기식품 발생현황과 감축방안 토론회' 주제발표

(3) 한반도 통일 후 식량안보 및 식품산업 발전 전략 연구

- * 연구자 : 이철호, 권익부, 문현팔, 김용택, 박태균, 김세권, 이숙중, 이장은
- * 연구기간 : 2011년 05월 16일~2012년 5월 15일 (12개월) * 연구비 : 4,000만원 (2011년 12월 완불)

(4) 식품가격 상승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 * 연구자 : 이철호 * 연구기간 : 2011년 5월 - 8월
- * 연구비 : 없음 * 연구 성과 : 제5회 식량안보세미나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 토론회' 주제발표

(5) 외부연구용역 수행

I. APEC 위해평가 훈련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연구

- * 연구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1월 * 연구비 : 5,000만원(식품의약품안전청 과제)
- * 연구자 : 이철호, 이꽃임, 이장은 연구위원
- * 연구내용 : APEC의 식품안전협력포럼(FSCF)에 참여하여 식품안전 위해평가에 관한 세계적인 정보 수집, 국내 훈련자료 제공

II.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경제적 이득에 관한 연구

- * 연구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1월
- * 연구비 : 3,000만원(식품의약품안전청 과제)
- * 연구자 : 이철호, 이숙중, 이장은 연구위원
- * 연구내용 : 조사기술(Irradiation)에 의한 식품의 저장, 손실방지에 대한 경제적 평가, 비용 편익분석 모델에 의한 조사기술의 식량안보적 가치 산출.

III.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

- * 연구기간 : 2011년 9월 - 2011년 11월
- * 연구비 : 400만원 (한국식품공업협회)
- * 연구자 : 이철호 공동연구(임정빈, 최지현, 안동환)
- * 연구성과 :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 활동

2-4. 학술회의

(1) 제3회 식량안보세미나 -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 현황과 전망

- 
- * 일시 : 2011년 3월 31일(목) 13:00~17:30 *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
 -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후원 :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음료신문
 - * 발표자 :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전략(노영호), 식품산업의 해외농업개발의 성공과 실패(김용택), 식품산업의 현황과 미래전망(황환준), 식품산업의 식량공급에 대한 한·일 비교(박태균)
 - * 토론자 : 권익부, 김성훈, 이필형, 이정희, 이기식, 전해경 * 참석인원 : 70여명

(2) 제4회 식량안보세미나 - 식품산업과 식량안보 ('2011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학술세미나)

- 
- * 일시 : 2011년 4월 26일(화) 13:00~17:30 * 장소 : 컨텍스 210호
 - * 주최 : 한국식품공업협회 * 주관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발표자 : 지구촌 식량위기 시대 대응 방안(이철호), 한·중 소비자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도 비교 연구(김보영수),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박태균)
 - * 참석인원 : 70여명

(3) 제5회 식량안보세미나 -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 토론회

- 
- * 일시 : 2011년 8월 18일(목) 13:30~17:30 * 주최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인정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발표자 : 현 물가 상황 평가 및 정책 대응(윤종원), 식품가격 상승요인에 대한 분석연구(이철호)
 - * 토론자 : 광범국, 김동환, 박태균, 박혜경, 손성락, 신영선, 이군호, 이향기, 최성환, 최지현, 황이남 * 참석인원 : 70여명

(4) 제6회 식량안보세미나 - 폐기식품 발생현황과 감축방안 토론회

- 
- * 일시 : 2011년 10월 5일(수) 13:30 ~ 17:30 * 장소 : 서울 aT센터 중회의실
 - * 주최 :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식품기술사협회,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발표자 : 쌀의 생산 유통과 이용 현황(김동철), 가공식품의 폐기원인과 발생 현황(채희정), 폐기식품 감축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황이남)
 - * 토론자 : 박동규, 변명우, 이광호, 송성완, 정윤희, 조윤미, 최명철 * 참석인원 : 70여명

(5) 식품조사 국제심포지엄

- 
- * 일시 : 2011년 5월 16일~19일 * 장소 : 플라자 호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녹지)
 - * 주최 : 식품의약품안전청 * 주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한국방사선산업학회
 - * 발표 내용 : 이철호(Food security and irradiation) 외 국외연사 9명, 국내연사 7명, 방사선 조사 식품의 올바른 이해와 지식 확산 도모, 방사선 조사 식품의 세계 동향 및 선진 정책, 체계 등에 대한 각국 사례 소개, 국내 문제점 개선 방향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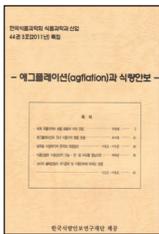
(6) 식량안보와 식품과학기술의 역할 심포지움

- 
- * 일시 : 2011년 11월 17일~18일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 * 주관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 * 주최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발표 내용 : 이철호(글로벌 식량위기와 식품과학기술의 역할)외 국외연사 2명, 국내연사 18명, 식량 생산증진을 위한 재배관련 기술, 식품의 안전유통을 위한 방사선 융합기술의 연구동향, 식품산업 원료수급과 이용, 식량안보와 식품생명공학기술의활용, 식품의 저장 유통기술 * 참석인원 : 300여명

2-5. 저술 출판사업

(1) 자료집

- I.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 현황과 전망 자료집 (182쪽) 200부 제작 배포
- II. 식품산업과 식량안보 (70쪽) 200부 제작 배포
- III.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 토론회 (122쪽) 300부 제작 배포
- IV. 폐기식품 발생현황과 감축방안 토론회 (132쪽) 200부 제작 배포
- V. 한국식품과학회 '식품과학과 산업' 44권 3호 (2011년) 특집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식량안보 - 별쇄본 200부 제작 배포



- * 목차
- 세계 곡물가격의 변동현황과 미래 전망 - 하영제
 - 애그플레이션과 국내 식품가격 변동 현황 - 최지현
 - 글로벌 식량위기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철호 · 이숙중
 -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박태균
 - 소비자 불매운동이 국가경제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 이장은 · 이철호

(2) 동영상 CD 제작

- I.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홍보 영화 (7분)
- II.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전진대회
- III. 지구촌 식량위기시대 대응 방안 (이철호 이사장 강의)
- IV. 식품안전의 날 초청 강연 (이철호이사장 강의)
- V. 식품가격 상승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이철호 이사장 강의)



[I]



[II]



[III]



[IV]



[V]

(3) 인터넷 월간 뉴스레터 발간

- I. 매달 재단 주요업무 및 식량안보 관련 소식들로 뉴스레터 발간, 홈페이지 게시
- II. 2010년 7월 1호를 시작으로 2012년 1월 현재 19호 발간
- III. E-mail 메일링 리스트 1,700여 명에게 발송

3. 2차년도 재무보고 (2011.01~2011.12) ::::

수입			지출	
항목	내용	금액	항목	금액
후원금	삼양제넥스(2010년분)	20,000,000	인건비	57,522,365
	농림수산식품부	20,000,000	복리후생비	7,218,070
	한국식품공업협회	10,000,000	접대비(회의비)	2,908,306
	오일근	100,000	연구용역비	102,420,816
	전중윤	5,000,000	통신비	13,207,862
	한국계분	10,000,000	세금과 공과금	2,241,780
	CJ 제일제당	20,000,000	보험료	2,471,060
	대상	10,000,000	여비교통비	467,000
	농심	20,000,000	차량유지비(주차비)	467,000
	대선계분	10,000,000	도서인쇄비	14,283,780
	삼양제넥스(2011년분)	20,000,000	소모품비	4,069,360
	이철호	3,824,000	지급수수료(홍보비)	30,351,100
	동원 F&B	20,000,000	운반비	248,500
	소계	168,924,000	사무용품비	3,010,990
	이자수익	이자	4,688,075	잡비 및 기부금
연구비	연구과제(위탁)	76,586,480		
전년이월		58,890,643		
총계		309,089,198	총계	253,096,290

수입	309,089,198
지출	253,096,290
이월금	55,992,908

4. 2012년도 사업계획 :::

4-1. 연구사업

(1) 한반도 통일 후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 전략

- 연구기간 : 2011년 6월~2012년 5월 (계속과제)
- 연구책임자 : 이철호
- 공동연구자 : 권익부, 문현팔, 김세권, 김용택, 박태균
- 연구비 : 4,000만원 (2011년도 지출 12,384,600원)

(2) 식품 이물질 관리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1월~2012년 10월 (1년 과제)
- 연구책임자 : 박영식
- 공동연구자 :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양승용 교수
- 연구비 : 2,000만원

(3) 쌀의 식미특성과 품질등급화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1월~2012년 10월 (1년 과제)
- 연구책임자 : 신라대학 식품영양학과 김미령 교수
- 공동연구자 : 이숙중, 이꽃임 (재단 연구원)
- 연구비 : 2,000만원

4-2.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1) 제7회 식량안보세미나

- 제목 : 한반도 통일 후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 전략
- 일시 : 2012년 4월 중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예정)
- 주최 : 통일부 공동주최(예정)

(2) 제8회 식량안보세미나

- 제목 : 식품 이물질 관리제도 개선 방안
- 일시 : 2012년 8월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3) 제9회 식량안보 세미나

- 제목 : 쌀의 품질 등급화 유통 방안
- 일시 : 2012년 10월
- 장소 : 양재동 aT센터

(4) 식량안보 학술대회

- 기존 학회와 공동 주최로 1회 이상 개최

4-3. 출판사업

- 재단의 출판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서출판 허가를 2011년 12월 2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신고번호 제307-2011-69호) 출판사명은 '도서출판 식안연'이며 아래의 로고를 사용한다.

도서출판 식안연

- 도서출판 식안연이 계획하고 있는 2012년도 출판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음식 오케스트라' 재판

- 저자 : 이철호
- 출판예정일 : 2012년 1월

(2) 소설 '식량전쟁' 출판

- 저자 : 이철호
- 출판예정일 : 2012년 3월

(3) 단행본 '식품 산업의 한식 세계화 전략과 사례' 출판

- 저자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 출판예정일 : 2012년 4월

(4) 콩스토리텔링

- 저자 : 콩세계과학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 (대표저자 유미경)
- 출판예정일 : 2012년 6월

(5) 식품폐기물 - 그 실체와 개선책

- 저자 : 한국식품기술사협회 (대표저자 채희정)
- 출판 예정일 : 2012년 8월

- 도서출판 식안연(食安研) 출판도서 -

(전화 02-929-2751, Fax 02-927-5201)



음식 오케스트라
저자 : 이철호
출판일 : 2012.01.10



식량전쟁
저자 : 이철호
출판일 : 2012.03.30



식품산업 한식 세계화에 날개 달다
(한국 식량보 연구재단 편)
출판일 : 2012.04.25(예정)

5. 2012년도 예산 :::

5-1. 재단 운영비

항목	세부내용	금액	합계
인건비	사무원(150만원/월)	18,000,000	30,000,000
	연구원 및 기타 인건비	12,000,000	
연구사업 지원	한반도 통일 후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 전략	30,000,000	70,000,000
	식품이물질 관리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연구	20,000,000	
	쌀의 식미특성과 품질등급화 연구	20,000,000	
저술지원사업	단행본 출판 소설 '식량전쟁'등	8,000,000	10,000,000
	홍보 영상물 제작 강연 CD제작	2,000,000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식량안보세미나 2회(5,000,000/회)	10,000,000	20,000,000
	기존 학회와의 공동 심포지움 2회	10,000,000	
회의비/사무실 운영비	회의비 (총회, 이사회, 자문위원회, 기타)	3,000,000	20,000,000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관리비, 기타)	4,000,000	
	홍보, 광고비 (홈페이지운영, 기타)	5,000,000	
	후생복지비	5,000,000	
	활동비	3,000,000	
소계		150,000,000원	

6.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전진대회 :::

6-1. 개회사 - 장태평 공동대표



존경하는 김황식 총리님, 유정복 장관님, 홍일식 이사장님, 이현구 특보님, 김학용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 대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극복하고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식량의 부족이 없는 안정적인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식량의 총체적인 부족을 예감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을 폭 넓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식량위기가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의 식량가격 상승을 극도로 우려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 곡물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변동현상이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식량가격의 상승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대규모 가뭄과 홍수 등 예전에 없던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의 육류소비 증가로 세계의 사료곡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가폭등으로 식량을 이용한 바이오연료의 생산이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세계의 식량대란은 이미 예정된 일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나라는 식량 재고량을 늘리고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이제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제1차적인 의무입니다. 전체 식량의 반 이상, 필요한 곡물의 70%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해외 농장을 개척하고 해외 식량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가운데서 국민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실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식량공급 구조의 취약성을 생각하지 않고 돈만 주면 얼마든지 수입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영양 공급면에서도 식량을 과소비하고 낭비하는 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음식을 아껴먹고 절약하는 일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식량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는 건전한 의식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농어민들이 땅과 바다를 놀리지 않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도록 나라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스스로 가꾸고 경작하여 식량 생산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유전자원을 보존 개발하고, 증산을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식량자급률 1%를 올리기 위해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자기 몫의 일을 정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곧 닥쳐올 세계 식량대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식량의 부족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다짐 아래 우리 국민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관여하는 모든 기관에서 식량자급 향상을 위한 국민 실천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식량주권을 확고히 가짐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나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6-2. 격려사 - 김황식 국무총리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오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민간차원의 국민운동 출범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식량의 안정적공급은 국방에 못지않은 안보과제이며 식품가격은 서민생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3위의 인구밀도를 갖고 있고3분의 2가 산림지대인 우리의 여건상 식량의 자급자족은 현재45%에 불과한 식량자급률과 7%의 곡물자급률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곡물재고 감소와 식량가격 상승으로 자급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식량의 자급률 제고는 농수산물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유통, 보건, 교육 연구분야 등 관련된 모든 분야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매진할 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식량안보 의지와 자급을 성취하려는 노력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급되는 식량의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식량위기시대에 하루속히 고쳐야 할 일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끼고 절약해야만 앞으로 닥칠 식량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부는 물론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식량안보 문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장태평 전 장관, 황민영 식생활국민네트워크 대표,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께서 국민운동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 드립니다. 오늘 시작되는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이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음식 문화가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6-3. 격려사 -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새로운 기운이 충만한 봄날에 열리는 식량자급실천 국민운동 전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마련해주신장태평前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황민영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대표님, 이철호 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김학용 국회의원님, 유성엽 국회의원님, 홍일식 한국인문사회 연구원장님, 이현국 대통령 과학기술특별 보좌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진대회는 국민생활과 국가발전의 근본인 식량자급을 위한 실천운동의 첫걸음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행사입니다. 보릿고개개와 초근목피라는 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녹색혁명 덕택에 주식 부족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식량자급 여건과 대외적 변수를 고려할때 안정적인 식량확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10년도 기준으로 27%로 에 불과합니다. 축산사료 용도를 제외해도 55%로 낮은수준이며 OECD회원국중 최하위그룹에속합니다. 세계인구의 증가,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국의 소비증가,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 확대,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 불안정등 구조적 요인들도 식량문제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요인과 주요국가의 곡물수출입 통제 등으로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밀과 콩옥수수·쌀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0%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은 물론, 곡물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절실합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사오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부족해지면수출국과 곡물메이저들이 물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한때 식량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이 수입국으로 전락하여 1998년에 국제곡물 가 상승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동이 발생한 예를 단순한 정책실패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식량문제는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필리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콩·옥수수·조식료 등의 자급률 향상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량은 곧 안보”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에 수립한 2015년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금년에 상향조정할 것입니다. 자급률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된 품목은 목표치를 대폭 높이고 곡물 중심의 식량자급률을 보다 포괄적인 식품자급률 개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입곡물의 수요를 감축하여 수입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콩과 밀의 수요 일부를 쌀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쌀가루와 밀가루가 혼합된 쌀밀가루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콩두부를 쌀두부로 대체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국산 조식료를 활용해서 수입곡물사료를 더 많이 대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해외곡물 확보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에 곡물회사를 설립하고 필요한 곡물을 직접 도입할 것입니다. 미국·브라질·호주에 편중된 곡물 수입선을 러시아와 남미·동남아로 다변화하여 국제곡물시장 불안정에 대비하겠습니다. 해외농업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 민간의 해외진출 위험요소를 줄이겠습니다. 쌀 비축 이외에 밀·콩·옥수수도 비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곡물 정보수집을 위한 관측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량자급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명한 소비습관을 생활해 나가는 범국민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음식물과 식량을 낭비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집 주변 텃밭이나 양지바른 곳에 채소를 직접 재배해 먹거나 제철음식과 자기 고장 식품(local food)을 소비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방법입니다. 이웃 일본이 2008년부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 국민실천운동(Food Action Nippon)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러한 식량자급 실천 방법들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식량자급실천 국민운동본부』가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은 생명유지의 필수요소인 먹을거리 생산의 주체이며 농어촌은 생명의 터전입니다. 농어촌이 잘 살아야 식량안보가 보장되고, 국민이 골고루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진대회를 계기로 국민 여러분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6-3. 축사 - 흥일식 한국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오늘 식량자급실천 국민운동의 기치를 들고 출정하시는 장태평 전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님, 황민영 식생활국민 교육네트워크 대표님, 그리고 한국식량안보 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자고로 민은 以食爲天이라,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국민의 식생활을 해결하는 것이 곧 나라의 근본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절대 빈국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노년층께서는 해마다 봄철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겼던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 사회가 불과 30년 만에 남아도는 쌀을 걱정하게 되었고, 오히려 지나친 육식과 과식으로 성인병과 비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절했던 보릿고개를 겪어보지 못한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음식 아까운 줄 몰라 낭비하고 버리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이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 대부분으로서 세계의 식량생산이 풍족하고 여유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잠정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세계는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식량부족으로 촉발된 정치사회적 불안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전역에서 중동국가들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앞으로 닥칠 세계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OECD에서는 식량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은 너무도 희박하고 안이합니다. 이제 우리는 외형적인 경제성장만을 좇아 정신없이 달려만 갈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그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세계열강들이 주창하는 소위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 표류하는 우리의 식량주권을 서둘러 되찾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식량을 외국의 손에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일찍이 역사의 禍는 준비없는 사람에게 미래의 영광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옛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것을 익히고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늘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어릴 적부터 한 톨의 곡식도 아끼는 마음을 가르쳐 왔습니다. 청빈과 근검절약을 지고의 덕목으로 삼는 선비정신을 기리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자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인 선비정신으로 재무장해야만 하겠습니다. 식량자급을 위한 국민 실천운동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방황하는 21세기 인류문명의 좌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식량의 낭비를 부끄럽게 여기고 과식과 무절제를 천민문화의 소치로 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확산되어 가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 운동이야말로 도덕적 정당성과 함께 논리적 합리성까지를 겸한 진정한 21세기 인류문명의 커다란 이정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의 이 모임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 안으로 식량자급을 위한 우리의 국민운동을 넘어서 그동안 잊혀졌던 우리의 선비문화를 부활시켜 온 인류를 감동시키는 일대 사상운동이 되기를 감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6-4. 축사 -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지구촌의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우리의 식량자급 실천의지를 다지는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처럼 귀한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식량은 하루도 거를 수 없는 생존의 필수품이고 인류 역사는 식량 확보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세기가 과학기술에 의한 세계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전개되는 21세기는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의 순탄치 않은 도전의 기간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뭄, 홍수, 지진으로 대참사가 일어나 농업생산 구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공업국에서는 동물성 식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세계의 곡물재고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나라들은 식량의 비축량을 늘이고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와 같이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에서는 식품가격이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비교우위 경제이론을 내세워 경제성이 없는 농업을 포기하거나, 돈만 있으면 식량은 언제든지 무제한 사먹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인 안이한 사고를 버려야 할 때입니다. 돈이 있어도 세계시장에서 사올 식량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과학기술한림원 원장으로 활동하였던 2008년 11월에는 “식량문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뒤이어 한림원 식량안보과학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림원 회원들이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경제능력으로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수입하여 풍요로운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올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적인 대책이나 준비가 매우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전진대회는 식량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온 국민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과소비와 낭비를 줄이고 식량의 소중함을 알고 아끼며 절약하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온 국민이 식량생산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사회, 식량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이는 성숙한 국민으로 발전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식량자급률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식량의 자유로운 수입이 제한받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끌어 올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정부와 산업계와 학계가 공동의 노력을 펼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간운동으로 시작되는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이 혼연 일체가 되어 우리의 식량주권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사업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 국민운동의 추진본부 역할을 담당하여 주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철호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5. 축사 - 김학용 국회 농수산식품위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학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세계 식량난에 대비하기 위한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전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식량위기(food crisis)가 진행 중이거나 곧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제 식품가격지수(food price index)는 236으로 식량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였던 2008년 6월의 224.1을 넘어섰습니다.

가뭄, 폭한, 홍수, 이상기온 등 세계적인 기상이변, 국제곡물 투기 자본의 움직임, 중동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불안정,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누출 등은 현재의 식량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식품가격 상승이 205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나 식품가격이 치솟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2010년도 잠정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은 54.9%,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6.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요 곡물인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극도로 낮은 수준인 1.7%와 3.8%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가나 식품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돈이 있어도 해외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3대 밀 생산국인 러시아가 지난해 8월 이후 밀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등 현재 자국의 식량난을 우려한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곡물수출 금지나 제한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전진대회'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전진대회를 통해 어려웠던 시절 보릿고개를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슬기롭게 넘기고 쌀 자급자족을 이뤄냈듯 식량자급률을 높여 심각해지는 식량위기를 범국민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전진대회'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태평, 황민영, 이철 호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본 대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6-6. 식량자급실천 국민운동 선언문



- 식량자급실천 국민운동 선언문 -

세계의 식량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잦은 기상이변과 중국, 인도 등 신흥 중진국의 경제성장에 의한 동물성식품의 폭발적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 생산의 사용 등으로 세계 곡물시장에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오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의 식량부족을 예감한 각 나라들이 식량 수출을 제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식량전쟁의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곡물의 70% 이상, 전체 식량의 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식량 안보에 대한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 전체 식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이 남아도는 것을 전체 식량이 아주 풍족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식량증산이나 소비절약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식량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식량문제를 남의 손에 의탁하거나 방치하여 둘 수 없다. 국민각자가 식량낭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리는 일에 동참하여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세계 식량난에 대비하는 자기 몫의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까지 식량부족의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1. 식량을 아끼고 낭비를 부끄럽게 여기는 일을 생활화 한다.
1.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의 고마움을 아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만든다.
1.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식량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다.
1. 농어촌을 삶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국민이 된다.